Editor : Seo, Jae Woo
Cooperation : Philipp Aduatz

Melting Chair

Melting Chair, 65cm x 93cm x 78 cm, Edition of 12 + 3 A/P, Glass Fibre Reinforced Polymer with a special silver coating

개념이 만들어낸 아름다움

오스트리아 출신의 필립 아두아츠(Philipp Aduatz)는 자유로운 과정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디자이너이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표현을 인용해 좀 더 쉽게 그의 디자인에 대해 얘기하면, '개념의 관능적 표현'인 셈이다. 고체에서 액체로 녹아내리는 혹은 반대로 액체가 굳어가는 듯한 모습의 멜팅 체어(Melting Chair) 또한 개념의 관능적 표현이 만들어낸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이다. 그는 '물질은 고체일 수도 액체일 수도 기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태일 수는 없다. 오직 이행의 단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개념을 통해 고체와 액체가 뒤섞인 관능적인 의자를 선보였다. 이를 위해 필립 아두아츠는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로 고체화 과정과 고체의 액체화 과정을 일일이 살펴본 후에 의자를 디자인하고, 여러 차례 모형을 만들며 최종 형태를 찾았다. 여기에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폴리머 강화 유리섬유를 사용해 견고함을 더했고, 거울 코팅에 특별 투명 래커를 한 번 덧칠해 표면의 상처 또한 방지했다.

"나의 디자인은 미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표로 생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좀 더 자유롭게 원하는 개념을 관능적으로 표현해나간다. 그렇기에 어떠한 디자인적 목표가 없다. 프랑스 미술가인 마르셀 뒤샹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책도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그의 디자인은 개념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도 없다. 멜팅 체어는 과정을 담아냈을 뿐이다.